

#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11, 예레미야 4-6, 다가오는 침략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예레미야서에 관한 강의를 듣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예레미야 4:5-6:30, 다가오는 침략입니다.

예레미야서 연구의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4장 5절부터 예레미야서 6장 30절까지 다루는 단원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는 침략에 대한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유다의 회개 실패로 인해 임할 심판의 경고를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생각해 볼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섹션에서 연구한 내용과 예레미야가 이 섹션에서 경고한 내용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회개하고 심판을 회피하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거부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겪게 될 결과입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사사기의 시작 부분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일련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고 거두는 영적인 원리를 상기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뿌린 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얻게 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회오리바람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관한 원칙 중 하나는 우리가 행한 대로 되돌려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처리되지 않을수록 더욱 심해지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께 돌아오라는 놀라운 정도로 반복되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의 초기 생각은 우리가 이전에 그 책을 읽은 적이 없거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랐거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몰랐다면 우리의 반응은 이 놀라운 제안에 비추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제안에 응하지 않고 그들에게 닥칠 재난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수업이 끝날 때 이러한 돌아오라는 요청이 올바른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를 통해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슈브를 거부했습니다. 8장 4절과 5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 넘어지면 그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서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왜 이 영원한 돌이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 주님께서서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0절에는 할례받지 않은 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들도 그들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7장 27절과 2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여도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네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할 합당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성격과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비추어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인지 아십니다. 그러나 제안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사야에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설교를 통해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들을 눈멀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그 메시지를 믿지 않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는 그들의 마음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들을 더욱 저항하게 만들 것임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무서운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종종 불신앙을 불신앙으로 처벌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거부할 때, 인간의 마음 위에는 저항과 냉담의 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할 때마다 결국 우리가 응답하기 어렵게 만드는 냉담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선지자들의 설교를 통해 일어날 일입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들의 설교는 그들의 눈을 더욱 흐리게 하고 그들의 귀를 더욱 굳게 하여 듣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일어나는 일은 재앙 때에 바로에게 일어났던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 부분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여 내 백성을 속박에서 구원하여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 가운데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련의 재앙에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율례와 형벌과 바로에 대한 형벌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강압케 하여 응답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파라오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식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죄된 생각과 죄된 욕망에 내버려두셨고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주고 있지만 유다는 올바른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므로 4장부터 6장까지의 메시지는 압도적으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예언 연설의 장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장르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나는 단지 여러분을 위해 생선 저녁을 준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지자의 말씀을 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장르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서 전체에는 심판 연설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심판 연설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다른 예언서에서도 이에 대한 예를 보는 것이 때때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부터 25절까지의 심판 연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심판 연설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고발과 선포입니다. 그리고 종종 비난과 발표 사이에 le k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에 고발, 기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발표는 구체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를 보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장, 8장부터 25장까지 하나의 단위로 묶인 일련의 심판 연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이 두 요소가 서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는 비애 신탁 형태의 이 심판 연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길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에, 밭에 밭에 얽매어 살 곳이 없어 이 땅 가운데 혼자 거하게 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비난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맹세하시되 반드시 많은 집이 황폐하여 크고 아름다운 집에 주민이 없게 되리라. 10에이커의 포도원에서는 에바에서만 한 빛과 한 호멜의 씨앗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발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아름다운 집을 빼앗아가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찢어 버렸습니다.

처벌은 범죄에 적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한 집을 즐기지 못할 것입니다.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탐하며 저녁이 늦도록 지체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잔치에 양금과 수금과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가지고 있으나 여호와와의 행사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비난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휩싸여 포도주를 한 그릇씩 마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시려고 일찍 일어난다. 그들은 포도주로 인해 염증을 느낍니다. 그들은 음악과 축제와 파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내 백성은 지식이 부족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의 명예로운 사람들은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무리는 목마름으로 말랐다. 그러므로 음부(히브리어: Sheol)는 그 식욕을 크게 하고 입을 한없이 벌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존귀함과 그 무리도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길고 긴 심판의 발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처벌은 범죄에 적합합니다. 그들은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음료로 소비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굶주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것과 같이 14절에 스올이 그 식욕을 더하고 그 입을 한량없이 열어 삼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발표입니다. 18절, 우리는 다시 비난을 받습니다. 거짓의 줄로 죄악을 끌며 밧줄 수레로 죄를 끌며 빨리 일어나라 말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그의 일을 가속화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뜻이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은,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랑스러워하며, 그것을 수레로 끌고 다니면서, '주님, 우리를 심판하시려거든 속히 행하소서'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만일 그들의 말이 옳다면 그대로 행하라. 20절, 그 발표가 있기 전에 더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21절, 또 다른 비난. 자기 눈에 지혜롭고 자기 눈에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22절: 포도주를 잘 마시며 용맹스러운 자들과 독주를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죄인에게 뇌물을 주고 무죄한 자의 의를 빼앗는도다

그래서 선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아주 짧은 비난을 할 수도 있고 긴 선언을 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반복하면서 비난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유죄인지보세요.

마지막으로 24절에서 망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불의 혀가 그루터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꽃 속에 떨어지듯 그 뿌리가 썩음 같을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펴시니라

26절에 보면, 그가 먼 나라들을 향하여 땅 끝에서 휘파람을 불리니 보라 그들이 속히 속히 오리라. 피곤한 자도 없고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졸거나 자는 자도 없고 허리띠가 풀린 자도 없고 신발끈이 끊어진 자도 없으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은 당겨져 있으며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 같아서 달려가느니라 이스라엘을 황폐시키고 멸망시키라. 유다 백성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 말하였더라 그것을 가져와. 빨리 일어나도록 하세요.

주님께서는 앗수르 군대가 속히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러 올 때 샌들 끈이 부러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백성은 포도주를 마시는 데 있어서 영웅이다.

그들은 올림픽 음주팀에 속해 있어요. 그들은 전쟁의 영웅이자 전투에서 용감한 해병대와 함께 전투에 임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사교 파티 또는 해병대? 그리고 아름다운 심판의 연설, 고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난과 발표에서 현실은 범죄에 맞는 처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5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구절을 이사야 5장처럼 비난과 선포가 뒤섞여 있는 심판의 연설로 보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장르를 사용할 때, 학교 선생님이 '아, 예언적 심판 연설의 장르를 따라야 한다'라고 양식을 건네주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 길이어야 합니다. 비난이 50%, 발표가 50%여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취하여 장르를 정말 매우 효과적인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창의적으로 사용합니다. 때로는 비난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발표일 때도 있지만, 역시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술을 마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주님은 이것이 자동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단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응답하고 그들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5장에 예언적 심판 연설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에 대한 광범위한 비난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달리십시오.

보고 참고하세요. 너희 광장을 뒤져 공의를 행하고 내가 그녀를 용서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들은 주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말하면서 4장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여 그분께 응답하면서 거짓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눈은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셨으나 그들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혐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돌아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시정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 저는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교육받은 사람들, 즉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큰 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자기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알되 다같이 자기의 멍에를 깨뜨렸음이니라

그들은 결속을 터뜨렸습니다. 알았어, 내 생각엔, 그래, 이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일 뿐이야. 박사학위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들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판을 면할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 거리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선지자는 그것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에스겔 9장에도 아주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해 하나님과 협상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기억하세요, 소돔에 50명의 사람과 의인이 있으면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그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하지 않으실 때까지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글쎄요, 만일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을 놓고 협상을 했다면 그는 한 곳까지 내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사학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 도시에 만연한 사악함의 결과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비난은 6절의 선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숲 속의 사자가 그들을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표범이 그 성읍들을 지키나니 성읍에서 나가는 자는 다 찢겨지리라 그들은 그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릴 야생 동물의 침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다야.

매우 간단하지만 그가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합니다. 우리는 7절의 비난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아이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당신은 신이 아닌 자들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더니 그들이 간음을 행하고 창녀의 집에 모여들었느니라. 그들은 잘 먹었고, 종마가 되지 않도록 각각 이웃의 아내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다시 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2장에 나오는 비유와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고소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매춘부입니다. 내가 그들을 먹이고 축복하였더니 그들이 성전에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창녀들의 집에 모여들어 그들의 거짓 신들을 섬겼느니라. 2장 그들은 마치 더위에 지친 들나귀와 같다.

여기서 그들은 배불리 먹은 튼튼한 종마와 같으며, 자기의 정욕을 억제할 수 없는 짐승과 같습니다. 나는 개인의 도덕성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 측면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습니까? 그 포도나무 줄 사이로 올라가서 멀하되 완전히 끝내지는 말라.

그 가지를 제거하라 그것은 여호와와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나를 심히 배반하였음으로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하여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포도원처럼 허물어 버리실 것이지만, 내가 이 무서운 심판을 내릴지라도 나는 그들을 완전히 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2절의 비난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거짓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아니하시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칼이나 기근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 될 것이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와 같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믿지 않습니다.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보라 내가 네 입의 내 말을 불로 만드리라.

그리고 이 백성은 원할 것이고,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데려오리니 곧 견고한 나라요 오랜 나라요 그 나라의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다시 이사야 5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나는 이 강력하고 사악한 군대를 데려올 것이며 해병대가 곧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전투에서 챔피언이 대학생 집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비난과 발표로 돌아가는 이 구절에 끌렸습니다. 나는 14절에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불처럼 변하는 구절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 말은,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파괴적인 일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와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군이 이곳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군대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앤디 딜라드(Andy Dillard)가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힘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인 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닛 대신 전투 헬멧을 쓰고 예배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주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돌과 바위를 부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극복합니다.

스펠전은 개인으로서나 설교자로서 우리에게는 집파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거둬나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것의 역효과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한 멸망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는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여 세우시고 심으시거나,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의 입에 있는 불입니다. 1장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리니 그 때에 네가 헐며 전복되고 뽑히고 멸망하겠고 혹은 건설하고 심을 것이니라.”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실제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할 일처럼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의 능력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의 심판 연설, 고발과 발표 사이의 상호 작용, 선지자들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심판 연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예레미야 5장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이 구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면 메시지를 나누는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개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르에 주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비난은 여호와께서 곧 침략군을 데려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장르를 따라가면서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또 다른 장치에 다시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미지, 비유적 표현, 단어 그림입니다. 침략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단순히 병력 규모, 숫자, 그들이 침공할 전략적 장소, 침공 시간을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군사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CNN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가 한 일은 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책에서는 이 시점에서 국가명과 군대의 정체성조차 명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에 예레미야 자신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다른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양한 말씀 이미지를 통해 생생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군대의 힘과 힘을 보십시오. 이 군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에서 제공되는 첫 번째 이미지는 적군이 파괴적인 포식자에 비유된다는 것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오며 열국을 멸하는 자가 그 곳에서 떠나 너희 땅을 황폐하게 하며 너희 성읍을 황폐케 하리라.

유다에는 사자가 그들을 향해 사나우며 으르렁거리게 될 것입니다. 5장 6절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숲 속의 사자가 그들을 쳐부수리라.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표범이 그들의 도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가는 자는 다 찢겨지리니 이는 그들의 죄악이 많고 배교함이 큼이라.

당신의 동네에 사자가 풀려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내리겠다고 위협하고 계십니다.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또 다른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군대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이 제시됩니다.

그곳의 군대는 강풍으로 유다 땅에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과 같을 것이다. 때로는 이런 힘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집이 무너지거나 농작물이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큰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모래와 입자가 하늘을 채우고 기본적으로 태양을 거의 가릴 때 폭풍이 몰아치는 이미지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군이 될 것입니다. 4장 11절에 “예루살렘 이 백성에 대하여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맨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로 불어온다 하리니 이는 그들을 키질하거나 정결케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충분한 바람이 나에게 찾아온다.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자는 나다. 5월과 6월에는 서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잔잔한 바람 대신 동쪽에서 사막에서 불어올 수 있는 바람 중 하나가 그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백성이 일년 중 곡식을 베는 때에 산 꼭대기 키질하는 마당에 올라가니 바람이 불면 곡식을 까불게 되리니 이는 쪽정이가 날아가서 곡식이 떨어지기 때문이더라 바닥에 떨어지자 그들은 그것을 한데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바람은 쪽정이와 곡식을 모두 날려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황폐하게 하고 멸망시키도록 고안된 바람이다.

13절에 보면 군대가 구름 같이 올 것이며 그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망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파괴적인 바람이 땅을 통해 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침략군에 대한 또 다른 그림(4장 23절부터 26절). 아마도 이것은 아마도 이 부분에서 이 침략군이 하게 될 일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묘사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나오는 또 다른 성구의 반향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내가 땅을 본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았으나 거기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내가 산을 보니, 보라, 그것들이 진동하고 있더라.

그리고 모든 산과 언덕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내가 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내가 보니 옥토는 사막이더라. 그리고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과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폐허가 되었느니라. 지금 퀴즈를 내서 물어본다면, 당신은 어떤 성경 구절을 생각하셨나요? 나는 우리 대부분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땅을 본즉 보라 혼돈하고 공허하였더라. 그것은 토후 보보후(tohu vobohu)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모양을 짓고 형성하기 시작하기 전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된 것과 정확히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면 그것은 창조 자체가 파멸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예레미야서에서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구원 역사를 취소하실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생애 말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창조 자체를 취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브렌트 샌디(Brent Sandy)의 책인 Plowshares와 Pruning Hooks에서 우리가 했던 이전 진술로 돌아가면, 우리는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의 극단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언적 과장법을 사용한 바벨론의 침략은 마치 하나님께서 땅 자체를 파멸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더 많이 반영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것들. 사람, 25절. 공중의 새들, 25절.

동물, 빛, 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그러니 황폐하고 황폐한 황폐한 땅을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가 오면 이런 느낌이겠죠.

28절. 이로 인해 땅이 슬퍼하고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다. 내가 말하고 작정하였으니 후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도 그들에게로 돌아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28절에서는 이 파괴적인 심판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땅과 하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읽은 구절에는 군대 자체에 대한 실제 묘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미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집이여 내가 먼 나라 곧 너를 치러 오게 하노라(5장 15절)

지속되는 국가입니다. 고대국가입니다. 그 나라는 당신들이 언어도 모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력한 전사들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장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들이 너희 수확물과 너희 음식을 먹어치울 것이다. 그들이 너희 아들딸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이 군대는 당신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군대만으로도 충분히 파괴적이다. 그러나 내가 또한 이 구절에서 듣는 것은 이 이미지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공격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치러 오는 군대는 부르짖는 사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모스서 첫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심판하러 자기 백성을 치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벨론 사자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유다가 그렇게 할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뜨거운 강풍과 날개와 구름의 수레를 타고 오는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시편이나 구약의 다른 곳에서 자주 하나님으로 묘사된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구름의 기수는 구름 수레를 타고 하늘을 달리며 전쟁을 벌이는 자입니다.

그분께서 땅에 내려오실 때 땅은 그분 앞에서 녹고 소멸됩니다. 유다에는 단순히 바벨론 군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름을 탄 하나님이 폭풍수레를 타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내려오십니다.



그들을 공격할 군대에 대해 사용된 또 다른 이미지 중 하나는 5장 17절에서 그들이 수확물을 먹고 음식을 소비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나는 그곳의 묘사가 종종 중동을 휩쓸고 절대적인 황폐화와 파멸을 가져오는 메뚜기 떼에 대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뉴스를 계속 주시한다면 오늘날 메뚜기 떼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들은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를 상대하고 있었고 결국 4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메뚜기를 퇴치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국민 1만명이 동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참호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플라스틱 조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메뚜기를 참호로 쫓아간 다음 결국 메뚜기를 묻어 덮었습니다.

1988년, 역사상 최악의 메뚜기 떼 중 하나가 55개국의 1,100만 평방 마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메뚜기 떼에는 100~150제곱마일에 걸쳐 확장될 수 있는 메뚜기 구름이 포함됩니다. 이 특별한 것에는 구름이 400 평방 마일에 달하는 메뚜기 떼가 있었고 본질적으로 매일 밤 100톤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5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유다가 곧 겪게 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바벨론의 군대와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울부짖는 사자이신 하나님, 유다를 공격할 폭풍 속에서 오는 구름의 기수로서 주님은 이 군대를 사용하여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언급하고 싶은 선지자들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심판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영향을 미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멸망을 가져오기 위해 올 군대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은 종종 여호와의 날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예언적 표현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4장 9절에는 여호와의 임한일이 없지만 9절에서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왕과 방백들 다 담력을 잃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이 파괴적인 심판을 묘사하면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의 예언적 전통 안에서 이것을 여호와의 날로 묘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환난 날에 대한 우리의 관점, 또는 우리는 마지막 날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 가져오실 종말론적 심판에 이끌립니다.

선지자들은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을 언급하기 위해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심판을 언급하기 위해 이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제가 버지니아를 여행하면서 산이 있는 아름다운 곳을 보러 갈 때 종종 두 개의 산봉우리를 보게 되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가까이 다가가거나 반대편으로 가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되면 둘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선지자들에게서 주님의 오실 날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임박한 심판을 모두 봅니다.

그들은 때때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이나 큰 환난을 먼 미래에 봅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을 때 둘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날 표현은 하나님께서 전사로서 내려와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고대 근동 왕들의 연대기나 그들의 업적에 대해 기록한 기록에서 고대 근동 정치인들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그들이 때때로 거짓말을 하고 날조하고 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때때로 그들은 내가 적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하루 만에 그들을 물리쳤다는 취지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곤 했습니다. 이집트 연대기 중 일부에는 왕과 그의 군대가 하루 안에 갈 수 없는 곳에서 명백히 이동한 내용이 있지만, 나는 하루 만에 적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전투 중 하나는 정오가 되기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긴 것입니다. 점심시간 전에는 제가 처리해 줬어요. 따라서 예언적 메시지는 고대 근동의 쓰레기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단 하루 만에 적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단 하루 만에 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진노, 하루는 오랜 기간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의 수레를 타고 땅으로 달려가시어 땅이 그의 임재 앞에서 녹고 하나님은 단순히 그의 임재만으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적을 압도합니다.

아시리아 왕들은 종종 내가 나의 영광의 힘으로 적을 물리쳤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바랐던 것은 여호와와 그의 대적들을 물리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자들이 바로 자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 대리인이 되셨습니다. 그는 유니폼을 바꿨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겠다는 성전 전통 대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레미야가 암시하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날, 곧 여호와와 그의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시리라.

그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여호와와 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과 19절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적 전임자 중 한 사람인 아모스는 이미 이 생각을 확립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성전 전통을 뒤집고 그것을 여호와와 그의 날의 맥락에 두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와 그의 날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시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다가오는 주님의 날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그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이(oi) 또는 화(woe)라는 단어를 들을 때 듣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왜 주의 날이 있겠습니까?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입니다. 좋아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나중에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여러분의 성전 전통과 아마도 그들의 평화의 거짓 선지자들 중 일부를 근거로 그들이 주님의 날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을 고대했던 것처럼 주님의 날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빛과 구원의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여 도망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그 비유가 사용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꿈이 그를 만났습니다.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더니 뱀에게 물렸느니라. 좋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물리치러 내려오시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패배시키기 위해 내려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자에게서 도망치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몇 발짝 다가섰다고 생각하고 꿈과 정면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우회전해서 사자와 꿈에게서 벗어나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기대고 '와, 내가 피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벽에서 나와 당신을 물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날이 아니니 어두움도 없고 빛도 없고 캄캄하고 빛남도 없느니라. 아모스는 예레미야의 전임자였습니다.

그는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와 그의 날이 다시 오리라 말하였느니라.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 중 한 사람인 스바냐는 여호와와 그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한 때가 될 것입니다. 그가 설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와 그의 날이 가까웠음이니라

주님께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제물로 바쳐질 것입니다. 8절, 그 제사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의 아들들과 외국 옷을 입은 자들을 다 벌하리라.

그 날에는 문지방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할 것이다. 포악과 사기로 그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우는 자의 그 날에 물고기 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12절: 그 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그 사람들을 벌하리라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처벌할 것입니다. 주님의 큰 날이 가깝습니다. 그것은 가깝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 왕과 방백들이 다 용기를 잃으리라.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고 주의 날이 멀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내리신 모든 심판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사야 2장에서 여호와와 그의 날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백성들에게 경고한 심판, 앗수르의 도래, 바벨론의 도래 등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 세션의 시작 부분에서 논의했던 원리를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일. 그리고 역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분명한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서 주님의 매일은 미래의 주님의 큰 날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신약성경 말씀을 읽고 선지자들의 관점과는 거리가 먼 주님의 날에 비추어 살도록 상기시키며 세션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주님. 베드로가 이르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천체가 풀어지고 땅과 만물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노출되다.

예레미야가 창조와 파멸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의 침공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될 것입니다. 11절,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주의 임하는 날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풀어지리라 천체는 불에 타서 녹으리로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나는 우리가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그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현실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싶다면 과거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장차 올 심판의 날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날에 비추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현실에도 비추어 살지만, 또한 축복과 구원의 현실에도 비추어 살아갑니다.

주님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날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서도 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서에 관한 강의를 듣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예레미야 4:5-6:30, 다가오는 침략입니다.